

經濟人 手帖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카나다 進出戰略

(III) 카나다경제의 특징과 그에 따른 한국인의 진출전략

뱅쿠버 주위의 집값 예측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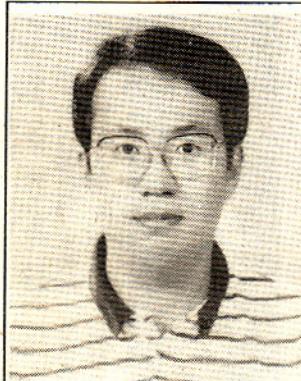
작년말에는 뱅쿠버 주위의 不動產價格에 대하여 이런 저런 예측을 하였다. 사람이 계을려서 그런지, 필자는 제때 제때에 원고를 신문사에 허락시켜드리지 못하고, 기분 좋은 날로 하루 날 잡아 머리를 책상에 박아가며, 한무데기 써서 그것을 신문사 컴퓨터에 직접 넣어버리고는 한 두어달 잊어먹고 지내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다. 그러다가, '날씨가 좋다'느니, '요사이, 한국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느니 '너무 무리하시지 않아도 된다'느니 하시며, 우회적으로 들려 말하시는 사장님의 전화를 받으면, '아차!' 싶어서 다시 허겁지겁 글을 쓴다. 그런 식으로 글을 쓰니까, 내용이 虛弱하고 앞뒤 말이 안 맞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전 소단락의 예언들은 약 두 달반 전에 한 것인데, 지금와서 다시 읽어보니, 아뿔사, 내가 환장을 했지 왜그런 소리를 했던가 하는 悔恨의 심정이 後悔莫及의 程度를 넘어서서, 그저 感慨無量할 뿐이다. 아! 癸酉年の 아침은 筆禱로 그 序幕을 시작하는구나!. 하여간, 작년에 공개적으로 거창하게 발표한 예의 大예언을 간이 총알만해져서 다시 읽어보니, 불행중 다행으로, 두어달이 지난 지금에도 별로 고칠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 아니, 더욱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틀린 예언에 관한 호된 책임추궁으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은 나중에 차근 차근 다시 찾았기로하고, 당분간은 당돌하나마 처음 조시 그대로 계속 박박 우겨 보아야겠다는 편편한 생각이 들었다. 하여간,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그와 같은 예언을 하였는지,

거기다가 무슨 근거로 계속 그렇게 우겨대는지를 아래에서 약간은 밝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넘버까지 불인 어색한 체계를 새삼스럽게 잡아가면서 약간의 자세한 설명을 하여보자.

1) 첫째로, 그 예언들의 핵심된 내용은 서너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앞으로 일년 정도는 부동산 가격이 별볼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悲觀의 단기 예측이 가능한 것은 비둘기가 내려오는 듯한 성령의 감동감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동녁 하늘의 七星陣을 가로지르는 行南의 流星을 보았기 때문도 아니다. 필자의 예측은 사실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推理의 결과일 뿐이다.

하긴, 따지고 보면, 예측이고 나발이고 할 것 없이, 지금은 엄청난 불경기이다. 경기가 나빠도 그냥 나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나쁘다. 카나다만 나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나쁘다. 낮은 이자, 높은 생산성, 변함없는 무역흑자를 자랑하던, 產業帝國 일본과 독일도 사상 유례없는 경제난을 겪고 있고, 미국은 나랏님도 직장을 잃을 정도니 巷間의 일반 老百姓은 말을 할 것도 없다. IBM도 기우뚱, GM도 기우뚱하는데, 여느 구멍가게들은 말을 할 것도 없다. 이 정도면 정말 불경기 중에서도 엄청난 불경기이다. 특히 카나다는 그 불경기가 강도가 더 심하다. 카나다는 실업률이 11.8%나되고, 나가 자빠지는 사업체가 하루에도 수십 개 나라비를 섰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작년 한해에, 약 40만 개의 생산직이 영원히 사라졌

다. 그리고, 올해도 그와 비슷한 숫자가 없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불경기가 시작한 약 1년 반정도부터 올해까지는 약 100만개 이상의 생산직이 이 카나다경제로부터 영원히 없어지는 것으로 보면 틀림없다. 100만? 뭐, 그럴 수도 있지... 과연 그럴까? 100만이란 숫자는 서울 여의도 광장을 立雞의 여지없이 짹짜 채울 수 있는 숫자다. 필자는 학교다닐 적에 김일성이 화형시키는



김영수 (경제학박사)

반공행사에 동원되어, 몇번 여의도의 백만 군중속의 한사람이 되어본 적이 있어서, 그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잘안다. 백만이란 숫자는 정말로 엄청난 숫자이다. 이 인적 한적한 조그만 나라에서 그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은 것이다. 그것도 일시적으로 잃은 것이 아니라, 전부, 영원히, 파나필리, 포굿, 포에버, 재기불능적으로 직장을 잃은 것이다. 인구 2천만 조금 넘는 카나다에서 즉, 직장이라고는 몇백만개 안되는 이 조그만 나라 이 카나다에서 100만개의 직장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경제적 大量虐殺 사태, 아니 더 쉬운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물폐거지 사태를 의미한다. 100만명중의 한사람 한사람 즉, 그 失業者 개인 개인들은 자기들

이 직장을 잃은 것은 단순히 경기 순환적인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할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디에선가, 자기를 애타개 기다리는 좋은 직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대단히 죄송하게도, 실정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직장이 영원히 없어진 것이다. 참 큰일이다.

좋다. 11.8%는 그렇다치고, 그러면, 나머지 88.2%는 행복하게 잘먹고 잘사는가? 그것도 '전혀 아니옵니다'가 정답이다. 공식집계된 실업률은 11.8%라고 하지만, 옛날에 비해 훨씬 작은 월급을 주는 곳으로 직장을 옮긴 사람, 직장을 찾다가 에라 모르겠다 짐작하면서 직장 찾기를 포기한 사람을 다합치면 50%가 넘고, 직장을 진즉부터 끊기고 싶었지만, 무서워서 끊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Distressed Worker라고 하는데, 이러한 Distressed Worker는 전체 노동 가능인구의 60%가 넘는다고 한다. 즉,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빼면, 월급쟁이들은 거의 Distressed Worker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박 조박 잘되는 자기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생활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모두 모두 용하신 분들이고, 다들 한두어 가지 용빼는 재주들이 있으신 분들이다. 지금은 그만큼 어려운 때인 것이다. 정말 어려운 때인 것이다. <마음흐에 계속>

(Crarewood Corp대
표 682-686)